

‘3·1운동 키즈’ 광주학생들의 항일정신 제대로 알려야

新湖南誌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20>

제5부-도전정신과 정의로 빛어낸 역사

④ 잊혀진 백년 광주학생독립운동

협의의 광주학생독립운동

1926~1934년 광주서 일어난 독립운동 학교 중심 조직적 항일운동 가능성 확인 전남 농민·청년·교육·여론운동에도 영향

김홍길 전남대 학생독립운동연구소 연구실장

한때 광복과 해방이 유일한 희망의 언어로 사용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해방을 염원했던 한 세대들이 떠나고 새로운 세대들이 연달아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해방은 빛바랜 역사가 되었다. 다가오는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자, 광주학생운동 90주년 이 되는 해다. 그 시대의 10대 청년 세대가 이 땅을 떠난지 오래되었고, 한때 뜨거웠던 항일의 기억은 쇠락했다.

술한 파란에 표류한 현대사 속에서 그 많은 독립운동의 증인 세대와 많은 흔적들도 사라졌다. 역사는 여러 사건의 집합체로, 기록으로 남겨진 지식이 모든 사실을 말하진 않는다. 특정 사건이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현상도 적지 않다. 여러 사실이 중요도에 따라 재배치되거나 주변적 지식으로 내버려지기도 한다. 그런데 누가 지식의 경중을 정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때 중요치 않게 간주된 지식이 다음 시기엔 오히려 중요한 지식으로 간주되는 일도 많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기록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참여범위의 문제다.

현재까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다. 즉 역사적 실체와 면모를 제대로 규명도 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는 일도 허다하다. 이 점에서 광주학생운동은 소위 팩트 체크가 많이 필요하다. 특히 광주학생운동의 주제, 성격, 지역적 범위, 영향력 등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조명 또한 그렇다.

첫째, 광주학생운동을 이끈 세대는 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일단 당시 식민지 조선 학생들의 위치와 결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각지에서 아이들이 나고 자랐다. 특히 1890년대 말에서 1910년 전후의 출생자들은 생애의 전반기를 식민지 백성으로 규정되어 성장한 제1세대였다. 광주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은 3·1운동을 보고 자란 키즈(kids) 세대들이다. 이른 아이들은 3·1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했고, 약간 늦은 세대들도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일제 36년을 통째로 경험하고 30대후반에서 40대의 나이로 해방을 맞이했던 해방기의 아버지 세대였다.

둘째, 식민지시대 학생운동은 어떤 의미였고, 어떤 성격을 가



2019년이면 100주년을 맞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재조명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제86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모습. <광주일보자료사진>

지는가. 조선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가 심혈을 기울인 분야중 하나는 학교였다. 학교는 조선청년들을 식민지적 굴레에 종속시키는 최고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학교야말로 저항하는 청년의 요람이었다. 특히 3·1운동이 보통학교, 서당, 사립학교, 종교학교, 전문대학 등을 바탕으로 항일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면, 광주학생운동은 1920년대 중반이후 확산된 신형 사상 및 민족운동에 기초한 훨씬 조직적인 수준의 보통학교, 중등학교에서의 항일운동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광주학생운동은 나라를 잃어버린 세대들이 스스로 자유를 향한 수단이 민족의 독립에 있음을 자각시킨 사건이었다. 식민지적 압제는 자치주나 내선일체와 같은 식민지회유론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의 끝이 독립이라는 절대과제의 해결 없이는 해소될 수 없었다. 그러나 광주학생운동은 명칭에 있어 광주학생운동이라고 표현

되었지만, 그 맥락이 가진 이중성을 고려해야한다. 일제 당국은 당시 어떤 사건이 발발하면 그 사건의 발발 지역을 위주로 사건을 규정하는 일이 많았다. 이를 준용할 경우 광주학생운동은 1929년을 전후로 1926년부터 1934년까지 광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일어난 대대적인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학생독립운동의 지역적 범위를 광주에 한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광주학생사건 역시 운동의 주체가 학생에 국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동안 광주학생운동은 크게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이 혼용돼 사용됐다. 좁은 의미에서 광주학생운동은 광주와 목포, 나주, 여수 등 전라남북도 일대의 학생운동이 연계된 학생운동으로, 재판의 관할청은 광주지방법원이 담당했다. 그러나 광주학생운동은 광의적 의미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개된 학생운동이었다. 운동의 참여주체와 계층적 범위역시 학생뿐만 아니라 청

광의의 광주학생독립운동

청년·일반인·항일지도자... 다양한 계층 참여 전국 비밀결사활동·경성학생사건 등 포괄 신간회·근우회... 유학생 친목회 등도 연관

년, 일반인, 항일지도자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광주학생운동 관련자들의 재판은 서울, 대구, 평양, 대전 등 여러 지방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렇게 볼 때 광주학생운동은 광주학생사건(학생사위와 비밀결사), 1930년 1월에 일어난 경성학생사건, 여학생만세운동, 전국각지에서 일어난 여러 형태의 학생사위와 비밀결사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공간적 범위나 시간적 구분 또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1927년 이후 결성된 신간회나 근우회, 조선청년총동맹이나 조선학생전위동맹, 학생혁명당, 혹은 1930년대 초반의 반제독서회는 모두 광주학생운동과 직간접적인 영향관계에 있다. 게다가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형성되고 있던 학생 자치회나 유학생들에 의한 친목회, 지역청년회 일부도 광주학생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광주학생독립운동이라는 규정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3·1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은 모두 식민지 공간에서 항일운동의 중요 거점에 학생 계층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국내외 유학생 집단과 지식적 엘리트로서 지역별 중등학생의 유기적 연계와 역할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협의적 접근이지만 광주학생운동 세대는 일제 말기 전남지방 농민운동, 청년운동, 교육운동, 여론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광주학생운동세대들은 일제말기의 수난과 해방 직후의 혼란 속에서도 면면히 활동을 지속했고,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들은 아쉽게도 해방후 이념과 분단 상황 속에서 활동상이 조망되지 못했고, 오랜 세월동안 잊혀진 세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광주학생운동의 전통은 해방 후 성장한 세대들에 의해 전승되었으며, 학생운동은 제반 민족문제, 민주주의문제, 학원자유화 등의 첨병적 역할을 반세기 이상 수행했던 것이다.



-국가보훈처 사료위원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전문위원
-광주 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대형 웨딩홀 준공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